

02



목천소식

2023년 2월 17일(제320호)

1월 목천군 인구 49,452명(남 24,948명 / 여 24,504명)

www.oc.go.kr



시각장애인용 보이스아이



발행인 옥천군수 편집 편집위원회 주소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T. 043)730-3065 홈페이지 www.oc.go.kr



전통문화체험관

고향소식을 선물하세요!

옥천군에서 무료로 발행하는 옥천소식입니다. 주민은 물론 구독을 희망하는 출향인이나 옥천에 관심 있으신 분께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청하셔도 됩니다. 병역근무자나 출향인에게는 고향 소식을 전하고, 고향을 자랑할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옥천소식을 선물하세요. 신청문의: 옥천군 홍보팀 ☎ 043-730-3065

02 기획 |

옥천형 마이스(MICE) 산업 육성

05 기획 |

전통 밥사, 소반의 매력

03 기획 |

옥천구읍 한바퀴

06 알림 |

2023 달라지는 시책

“옥천형 마이스(MICE) 산업 육성!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관광 분야 첫걸음”

전통이 숨쉬는 구읍 4차 산업으로 미래를 잇다

옥천군은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 브랜딩화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도모해 중부권 소규모 마이스산업의 핵심지역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마이스(MICE) 산업은 회의(Meeting), 포상 관광(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 및 이벤트(Exhibition&Event)의 첫글자를 딴 용어로 컨퍼런스, 전시, 문화 이벤트 등을 통해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융·복합 관광산업을 지칭한다. MICE 산업은 4차 산업 시대의 ‘굴뚝 없는 황금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관광 소비 및 소득 증대 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군은 마이스 기본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옥천읍 상계리 일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40억 원을 투자해 2025년 12월까지 중소규모 마이스 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2층 규모(연면적 913㎡)의 센터에는 교육장, 전시실, 가변형 대회의장 등이 포함된다.

마이스 시설은 각종 군의 축제·행사·전시회 등에 활용되며 군민을 포함한 방문객 모두에게 개방된 여가 및 편의, 문화시설로서의 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군에서는 마이스 센터 신축을 위해 사전 절차 이행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본구상 용역, 설계공모, 실시설계 등을 통해 2025년에는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마이스 센터 신축과 더불어 장령산자연휴양림 대회의실 리모델링 및 권역별 농촌체험마을 회의실 리모델링, 영상 장비 기자재 지원 등을 통해 회의실, 숙박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내 마이스 시설을 고루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기반 조성 이후 군은 교통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대전, 세종 등 정부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회의, 기업 회의 등을 유치하고, 더불어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구읍 문화유산 거리 및 청정 생태 관광자원 등을 연계한 협력 사업 발굴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문화유산이 숨 쉬는 마을 옥천구읍 한바퀴

구읍(=옥천의 옛 시가지)은 조선시대 옥천군 관아가 있던 곳으로 1917년 군청이 경부선 철도가 통과하는 옥천읍 삼양리로 이전되면서 구읍으로 불리게 됐다. 정지용 생가, 육영수생가, 옥천향교, 옥주사마소 등 문화유적이 즐비하다. 해마다 시인 정지용 선생을 기리는 지용제가 열리는 이곳은 맛 집과 카페가 많아 전통과 현대 문명이 어우러지는 거리로 변모하고 있으며 2020년 옥천전통문화체험관이 문을 열면서 옥천의 관광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관광명소 옥천9경 중 아홉 번째이다.



전통문화 체험관

위 치 옥천읍 향수길 100
 관람시간 10:00 ~ 17:00
 휴 관 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옥천관(체험동), 관성관(전시동), 고시산관(숙박동), 옥주관(커뮤니티센터), 전통놀이마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지용 생가

위 치 옥천읍 향수길 56
 관람시간 09:00 ~ 18:00
 휴 관 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현대시의 큰 별 정지용 선생의 생가가 복원되어 있다. 생가의 사리문을 열고 나가면 정지용 시인의 문학세계를 둘러볼 수 있는 문학관이 있다. 손으로 느끼는 시, 시 낭송, 시어 검색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육영수 생가

위 치 옥천읍 향수길 109
 관람시간 10:00 ~ 18:00
 휴 관 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육영수 여사가 태어났을 때부터 결혼 전까지 살았던 곳으로 1600년대부터 삼정승이 살았던 집터로 흔히 교동집이라고 불리던 옥천의 명문가다.



교동저수지(생태습지)

위 치 옥천읍 성왕로 1340 일원
 관람시간 상시 개방

저수지 둘레길(1.5km)을 따라 목교, 야외 공연장, 쉼터(정자)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구읍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애용되고 있다.



지용문학공원

위 치 옥천읍 상계리 19번지 일원
 관람시간 상시 개방

박두진, 박용철, 조지훈, 도종환 등 유명 시인 13편의 시비가 조성되어 있고 정지용 시인의 일대기를 기록해 놓은 가벽과 시비광장, 생태연못, 산책로 등으로 꾸며진 공원이다.



옥천향교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위 치 옥천읍 향수8길 8
 관람시간 해설사 동행 투어 시 개방

조선시대 지방 교육기관으로 태조 7년(1398) 창건하여 임진왜란 때 병화로 소실되었던 것을 1960년대 재건했다.

“전통 목가구의 멋스러움에 반하다”

충북 옥천전통문화체험관에서는 신년 특별전 ‘숨결, 어루만지다’가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관성관(전시동)에서 3월 2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제1부 국가무형문화재 작품전, 제2부 옥천전통문화체험관 하반기 정규강좌 목공예 수료생 작품전 등 2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국가무형문화재 작품전은 국립무형유산원으로부터 각자장, 나전장, 두석장, 소목장, 소반장, 칠장, 화각장 등 7종목 장인들의 작품 57점을 대여해 일상과 밀접한 전통 목가구 전시를 통해 한국 전통예술의 고유성을 이해하고, 군민과 지역 방문객들에게 한국 전통공예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가까이 탐미할 수 있는 기회이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전문강좌 목공예 수료생 작품을 함께 전시해 바쁜 생활 속에서도 전통문화를 친근하게 즐기는 우리 이웃의 예술 사랑을 살펴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통 목가구의 절제와 균형의미를 통해 조상들의 지혜와 멋을 공감하고 소통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옥천전통문화체험관(☎ 043-730-3419)



숨결, 어루만지다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신년 특별전

- ❖ 전시 기간: 2023. 1. 3.(화) ~ 3. 26.(일) (3개월간)
- ❖ 전시 장소: 옥천전통문화체험관 관성관(전시동) 제1·2전시실
- ❖ 전시 주제: 자연 그대로의미를 살린 한국 전통 목가구의 절제와 균형의미

1부

주요 전시
국가무형문화재 작품 전시(59점)

전통소반, 평상, 머릿장, 반닫이, 탁자 등 목가구 작품



2부

수료생 작품전
2022 하반기 목공예(연엽호족반) 수료생 작품전



전통 밥상, 소반의 매력을 느껴보자.



소반 작가 이재웅님이 전하는 소반의 매력

직업이 처음부터 소반을 만든 것은 아니었다. 영화를 전공하고 촬영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강화 정수사에서 본 대웅전의 꽃 장식 화병이 나를 일깨웠다.

전라북도 부안에서 태어나 근처 내소사의 꽃살문의 창호를 보고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던 것이 자연스레 북촌의 청원산방으로 이끌었다. 심용식 소목장 선생님으로부터 전통창호를 만들게 되었고 이후 국가무형문화재 소병진 소목장 선생님께 전통가구를, 소반장 이종석 선생님으로부터 소반을 배우게 되었다.

소반은 밥상이다. 고구려 무용총의 벽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항상 우리 삶 한가운데 있었고 가장 한국적이며 친근한 목가구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를 거쳐오며 디자인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완성된 것이 바로 소반이다.

지금의 작가들도 현대적 해석으로 소반의 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해 보지만 오랜 기간 다져진 완성도를 뛰어넘는 것이 쉽지 않은 않다.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해 새로움을 더하기보다 완성도 높은 이전의 작품을 재현하는 것이 흥미롭고 늘 새롭다.

창호를 시작으로 소반에 이르기까지 훌륭하신 선생님께 사사한 것이 커다란 행운이고 현재 소반 작업의 튼튼한 자양분이 되었다.

처음 한두 개 만들 때는 재미를 몰랐다. 그러던 중 '소반 하나에 저마다 개성과 특색이 담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소반은 생산된 지역에 따라 특징이 있어 산지별 명칭이 있다.

좌우 두 개의 판각이 다리 역할을 하는 해주반, 판각에는 복을 가져오고 액을 없애주는 문자나 화초, 동물문양을 조각한다.

해주반에 비해 간결미의 선을 보여주는 나주반, 현대적 미니멀리즘과 상통한다.

부드럽고 화려한 운각이 특징인 통영반, 넝쿨모양 무늬의 당초문, 아(亞)자문, 복이나 장수를 의미하는 길상문자를 혼합하기도 한다.

또한 상판과 다리의 모양에 따라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는데, 호랑이를

닮아 호족반, 개다리를 닮아 구족반, 이처럼 원목을 자르고, 깎고, 다듬고 칠하는 과정에서 나무가 가지고 있는 세월을 드러내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예로 안으로 굽어진 다리 부분이 '개다리를 연상시킨다'하여 개다리소반 일명 구족반은 서민용 소반으로 알려졌지만 곡선미가 우아하여 중상류층에서 사용된 고급 소반이었다.

전통의 현대적 가치

생활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것 같다. 2년 전 아카데미 시상식에 오른 봉준호 감독은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는 거장 마틴 스콜세이지의 말을 인용했다.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가 가장 훌륭한 이야기로 전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렇듯 전통은 오래되고 유행에 뒤쳐진 것이 아니라 본연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킹덤에서는 선조의 갓과 한복에 열광했고, 사극 연모, 백일의 낭군님, 근래 환혼에 이르기까지 안방과 사랑방에 소반이 종종 등장한다.

여성이 거주하는 안방 창호에는 화려한 꽃완자문을 남성의 공간인 사랑방에는 세살장이나 아(亞)자문으로 단순하지만 절제미를 표현한다.

소반은 오랫동안 일상생활에 사용되었는데 특히 조선시대에는 1인 1반의 식사 관습이 정착되어 가족 수에 따라 여러 구의 소반을 비치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현대에 신속함과 편리함이 소반의 수요를 급속하게 감소시켰으나 최근에는 차상, 1인 책상, 밥상 등 실생활용으로 공간을 연출하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다.

체험관 수업진행은?

밀도, 전밀도, 흑대패, 조선대, 호비칼, 소반칼 등 이름만 들어도 생소한 전통 수공구를 활용해 전통방식 그대로 작업하게 된다.

체험 과정은 지역 특색이 뚜렷한 소반의 실물을 직접 보면서 제작하고 정확한 실측 도면을 제공하여 원형 복원에 충실한 수업을 지향한다.

옥천전통문화체험관의 소반 수업은 천판에서 운각, 판각, 족대까지 모든 과정을 전통공구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제작한다.

전국에서도 흔치 않은 교육과정이라 차량으로 50분이 넘는 구미에서 배우러 오시는 분도 있다.

한국적 조형미가 빼어난 소반을 직접 깎고 다듬는 과정을 통해 어르신들은 추억과 향수를 느끼고, MZ세대는 힙한 자기만의 새로운 아이템을 창조할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한국인의 밥상, 전통소반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

소반이 가진 매력을 보여주고 싶다. 일상에서 사라져간 소반이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의 문화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관심을 가질만한 콘텐츠를 활용해 소반의 매력을 보여줄 전시회를 구상 중이다.

이에 옥천전통문화체험관에서 주관하는 소반제작 과정을 적극 활용해 소반을 매력의 전달해 드리고 싶다. 올해도 제작 과정이 개설될 것이다. 그때 함께 했으면 좋겠다.



“모르면 나만 손해”

2023년 달라지는 제도 한눈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장려수당 지원

NEW

문의 옥천군 주민복지과 ☎ 043-730-3632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에게 매월 장려수당을 지원

- 지원대상**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로 정규직원
- 지원내용** -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연간 9,120천원 지원
- 종사자에게 매월 7만원(보육사) 또는 10만원(시설장)의 장려수당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설에서 분기별로 운영 보조금 신청 시 추가로 신청
- 신청기간**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찾아가는 청소년 비전교육

NEW

문의 옥천군 행복교육과 ☎ 043-730-4983

생애주기별 맞춤형교육 일환으로 자기 주도적 미래 설계 확립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찾아가는 청소년 비전 교육을 지원

- 지원대상** 옥천군 관내 중·고등학교
- 지원내용** 청소년기 꿈을 찾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비전 교육
- 신청방법** (공문 신청) 공고 후 학교 단위 공문 신청
- 신청기간** 1/4분기 신청
- 교육기관** 신청 학교 협의 후 상반기 중 진행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확대

문의 옥천군 행복교육과 ☎ 043-730-3602

만 9세 이상에서 만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에게 현금 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만 9세 이상에서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지원내용**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옥천읍·면 행정복지센터
- 기타사항** 청소년특별지원금 18,000천원

고등학교 3학년 운전면허 취득 지원

NEW

문의 옥천군 행복교육과 ☎ 043-730-3602

관내 고등학교 3학년 전교생에게 운전면허 취득 시 1인당 50만원 한도로 지원

- 지원대상** 2023. 1. 1. 기준 관내 고등학교(옥천고, 산과고, 청산고) 3학년 재학생
- 지원내용** 1인 50만원 상한으로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 신청방법** (공문 신청) 학교를 통한 공문 신청(예정)
- 신청기간** 학기당(1학기, 2학기) 신청 접수(예정)

오지거주 학생 행복교육 택시 지원

NEW

문의 옥천군 행복교육과 ☎ 043-730-3602

관내 고등학교(1~3학년) 재학생 대상(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오지거주 학생) 1인당 월 15만원 상한으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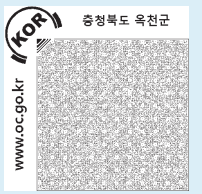
- 지원대상** 관내 고등학교(옥천고, 산과고, 청산고) 재학생
- 지원내용** 1인 월 15만원 상한으로 택시비 지원
- 신청방법** (공문 신청) 학교를 통한 공문 신청(예정)
- 신청기간** 연 3회(6월, 10월, 12월) 신청 접수(예정)

국내·외 기업박람회 지원

문의 옥천군 경제과 ☎ 043-730-3383

관내 등록된 공장에 국내·외 기업박람회 참가비 등을 지원

- 지원대상** 관내 등록 공장
- 지원내용** 국내 박람회: 부스비, 장치비, 홍보비(40만원) - 최대 2백만원
국외 박람회: 부스비, 장치비, 운송비, 통역비 - 최대 5백만원
* 총사업비의 최대 80% 보조(사업비 한도 내)
- 신청방법** 군청 경제과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사업기간 내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 사업

문의 옥천군 주민복지과 ☎ 730-3634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아동 급식 비용을 향수ok카드를 통해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결식우려 아동
- 주요내용** 향수ok카드를 통한 아동급식 지원
1인 / 1식: 9천원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학기중 지원: 학기중 토공휴일 1식 지원
(연중지원: 연중 1식 지원 / 방학중 지원: 방학중 1식 지원)

대상포진 무료접종

문의 옥천군 보건행정과 ☎ 730-2195

1년 이상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63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 지원대상** 1년 이상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3세 이상 주민 중 과거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없는 자
- 주요내용**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 신청기간** 2023. 2. ~ 2023. 12.
- 사용기한** 쿠폰 발급일로부터 7일
- 기타사항** 보건소(지소, 진료소)에서 쿠폰을 발급받은 후 병원에서 접종

보호대상 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문의 옥천군 주민복지과 ☎ 043-730-3634

보호대상 자립준비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

- 지원대상** 시설퇴소, 가정위탁 종료 아동
- 주요내용** 자립정착금 지원: 1회 1,000만원
- 신청기간** 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1개월 전

금연 · 금주구역 과태료 인상

문의 옥천군 건강관리과 ☎ 043-730-2122

조례 지정 금연 및 금주구역 내 흡연 · 음주 행위 위반 시 부과 과태료 '5만원'으로 인상

과태료 인상 3만원(2022. 4. 7. 이전) ▶ 5만원(2022. 4. 8. 이후)

금연 · 금주 구역(조례 지정)

- 금연 구역** 417개소(도시공원, 학교절대보호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주유소)
- 금주 구역** 103개소(도시(어린이)공원,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학교절대보호구역, 청소년시설)

치매안심센터 송영차량 변경 운행

문의 옥천군 치매안심센터 ☎ 043-730-2158

- 대상** 치매안심센터, 청성·청산기억키움터 이용주민
- 변경내용**
 - 오전: 사전 예약제
 - 오후: 프로그램 참여자
- 변경사유**
 - 민원인 중심으로 탄력적 운행및 이용자 수를 늘리고자 함
 - 치매프로그램 참여자 위주 운행으로 신규대상자를 발굴하고자 함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지원사업

문의 옥천군 경제과 ☎ 043-730-3712

옥천군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사업을 영위 중인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 소상공인에게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고 2천만원 까지 경영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

- 지원대상** 옥천군에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소상공인
- 지원한도**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80% 범위(자담 20%)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 심사기준**
 - 국세+지방세 납부 세액 500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또는 교육 이수자 우선 선발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문의 옥천군 경제과 ☎ 043-730-3383

옥천군에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에 공장 기반시설 및 근로자 편의시설 정비 등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

지원내용 업체당 25백만원(2022년)▶업체당 30백만원(2023년)

한국 중·고배구연맹 김홍 회장, 옥천군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2023 옥천 향수배 동계 스토브리그 전국 중·고배구대회’를 위해 옥천을 방문한 한국 중·고배구연맹 김홍 회장이 1월 13일 옥천발전을 위해 써 달라며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냈다.

옥천여신으로 활동하고 있는 러블리즈 미주가 1호로 500만원을 기부했으며, 지난 6일 지역 출신으로 세종시에서 내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윤범용 원장

과 농협중앙회 충북지역 이정표 본부장에 이어 김 회장은 100만원 이상 4번째 고액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15일까지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한 인원은 총 71명이고, 이중 답례품 주문은 36건이 접수되어 발송을 완료했다. 답례품은 한우세트, 기름세트, 벌꿀 등 10개 품목이 고르게 기부자의 선택을 받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연간 500만원 한

도 내에서 자신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한 기부금 10만원 이하의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 방법은 인터넷 ‘고향사랑e음’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농협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옥천군수 ‘주민과의 대화 읍·면 연두순방 성료

새해를 맞아 군민과 격의 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파악하기 위한 옥천군수 읍·면 연두순방을 실시했다. 순방은 2월 13일 동이면을 시작으로 20일 옥천읍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순방에서는 군민과의 화합을 위해 읍·면 유관기관 방문, 2023년도 군정업무 보고, 주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으며 140여건의 주민건의 사항을 접수했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해당부서 검토를 거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옥천군, ‘교육복지 천국’ 조성 본격화

옥천군은 민선8기 대표공약인 ‘교육복지천국’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군은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한다. 어린이집 16개소에 ‘차량운영비’를 월 40만원씩 확대 지원하며, ‘특별활동비’를 월 25만원에서 75만원까지 현안별 차등 지원해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 특별활동: 표준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연령별 활동 프로그램

또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건립 추진 중인 창의어울림센터 2층에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지역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은 총사업비 15억원으로 스터디카페, 커뮤니티센터, 동아리실 등으로 구성되며 2024년 중순에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년에 도내 최초로 진행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금도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상반기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개정 후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2배로 확대해 중학생은 연간 14만원, 고등학생은 연간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지 거주 학생 행복교육 택시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군은 관내 고등학생 중 학교 반경 2km 이상 지역에 거주하고 학업을 마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이 종료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대중교통 운행 노선으로부터 도로상 거리로 1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월 최대 15만원 택시비를 지원한다.

또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한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최대 20개의 마을교육공동체에 200만원에서 1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다양한 교육활동 기회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세대의 평생교육을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 군은 문정리 439번지 일원에 180억원의 예산으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소통하는 ‘옥천군 평생교육원’을 만들 계획이며, 올해 기본구상과 타당성 용역을 시작해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야간에 여권 및 서류 발급이 필요하신 옥천군민 여러분께서는 화요 야간 민원을 기억해 주세요

운영일시 매주 화요일 18:00 ~ 20:00 (법정공휴일 제외)

운영장소 군청 민원실

대상민원 여권 신청 및 교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제증명 발급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충북 옥천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중 저운저장고 건립 지원 및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에 실시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측량 신청은 군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고 감면 대상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읍·면장 발급),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옥천군수 발급)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소유 토지와 장애인이 소유 토지를 측량할 경우에도 3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측량 신청인이 경제복원측량 완료 후 3개월 이내 측량을 재의뢰하는 경우에는 90%, 6개월 이내 70%, 1년 이내 50%를 감면해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 90%** **측량재의뢰 감면**
 경제복원, 등록전환, 지적현황측량 후 12개월 이내에 재신청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90%~50%까지 할인하여 드립니다.
 - 유의사항: 동일 의뢰인 및 동일 소재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감면율: 3개월 이내 90% / 6개월 이내 70% / 12개월 이내 50%
- 30%**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 저운저장고 설치를 위한 측량 시 수수료의 30%를 감면해 드립니다.
 - 유의사항: 측량외뢰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 불가하며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정부보조 대상사업 증명서
- 30%** **농촌주택 개량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측량 시 수수료의 30%를 감면해 드립니다.
 - 유의사항: 지적측량 의뢰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면 적용이 불가하며,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 증명서
- 50%** **재해복구측량**
 산불·폭설·태풍 등 천재지변의 피해 복구를 위한 측량 시 수수료의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 유의사항: 피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감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범군민 협의체 회의 청남대에서 개최

중부내륙연계 발전지역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결의



옥천 레이크파크 범군민협의체 출범식 2022.12.21.

옥천군은 2월 17일 레이크파크 범군민 협의체 위원과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특별법」 연내 통과 결의 대회와 옥천군 레이크파크 범군민 협의체 회의를 청남대 대통령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청남대에서 충북도내 시군 중 최초로 옥천군이 개최한 행사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특별법」 제정을 통한 대청호의 합리적 규제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다 같이 뜻을 모으고 결의를 다졌다.

청남대는 대청호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천혜의 자연경관과 드넓은 호수를 직접적으로 접하

고 있지만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개발 및 이용이 어려워 규제 완화가 시급한 충청북도의 대표 관광자원이다.

옥천군 역시 전체 면적의 83.8%가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2중 3중의 환경규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범군민 협의체 회의에서는 대청호와 금강을 중심으로 한 옥천군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과 추진전략 등에 대한 밀도 높은 논의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특별법」 제정 결의대회도 함께 진행해 열띤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1980년 대청댐 건설 이후 옥천군은 각종 규제에 묶여 지금까지 엄청난 피해와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으나, 이제는 충북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의 최대 수혜지가 되기 위해 대청호 친환경도선 운항 등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구상, 레이크파크 범군민 협의체 발족 등으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2023 숨은 기억찾기 프로젝트’ 시작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오재훈)은 복지관 노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2023 숨은 기억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월 7일 밝혔다.

‘숨은 기억찾기 프로젝트’는 다양한 인지도원 활동에 참여하면서, 노인 스스로 치매 위험에 대비하는 습관을 알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며 치매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2월부터 11월까지 상시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치매예방을 위한 ▲마음건강교실 ▲몸건강교실 ▲기억건강교실 ▲건강한 습관 만들기(실버보드게임) 등을 외부 전문가와 연계, 자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2일 충북도립대학교의 ‘영상자서전 제작 사업’과 협력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마음건강교실’을 진행하였으며, 총 26명이 참여하여 자신의 기억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찾고 그 과정을 담아 영상자서전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안 모 어르신은 “복지관에 매일 오는 게 나한테는 치매예방을 위한 첫 번째 습관이다. 거기다 마음건강교실에서 속상한 일도 위로받고 멋진 마음도 풀다 보니 하루를 더 건강하게 살다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치매예방을 위한 ‘숨은 기억찾기 프로젝트’ 문의 사항은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사회참여팀 (☎ 043-730-2631)으로 문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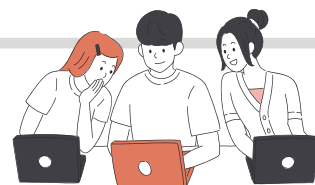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옥천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이 사업은 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를 파견해 작은도서관의 전문성과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하고 지역 내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의 연계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된다.

군은 사서 2명을 채용해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간 지역 내 작은도서관 4곳(안남배바우, 행복동이, 청성, 이원)을 정기적으로 순회 방문할 계획이다. 순회사서는 장서관리, 운영자 실무교육, 독서문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업무 등을 지원한다.

현재 군은 생활문화공간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순회 사서 지원사업과 더불어 도서구입비,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독서 프로그램 등 사업을 지원 및 운영하고 있다.

2023년 주민정보화 및 미디어교육 수강생 모집



- 접수기간** 2. 12.(일) ~ 3. 3.(금)
- 접수방법** 홈페이지(oc.go.kr/ocmc/index.do), 방문접수(선착순)
- 모집인원** 교육과정별 10명
- 수강료** 무료(ITQ 자격증 취득비 본인 부담)
- 유의사항** ITQ 자격증 시험 신청은 본인 직접 신청
- 문의처** 옥천군 행복교육과(☎ 043-730-3742)

교육과정	교육일정		교육장소
	기간 및 시간	요일	
파워포인트 활용	3. 6.(월) ~ 3. 17.(금) (2주)	월~금	주민정보화교육장
	10:00~12:00 (2시간) / 10일 과정		
나도 유튜버 되기(기초)	3. 7. ~ 3. 22.(3주)	화~금	영상미디어실
	10:00~12:00 (2시간) / 10일 과정		
한글문서 예쁘게 꾸미기	3. 6. ~ 3. 17.(2주)	월~금	주민정보화교육장
	13:30~15:30 (2시간) / 10일 과정		
ITQ 엑셀 자격증 과정	3. 13. ~ 4. 5.(4주)	월~목	주민정보화교육장
	19:00~21:00 (2시간) / 15일 과정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



옥천군은 올해 경로당 운영비를 작년 대비 10% 인상한다.

군은 공공요금, 부식비 등 생활물가 인상에 따라 안정적인 경로당 운영을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회원수 구간별로 9만원씩 차등 지원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혜택이 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30명 이하 경로당에 연간 148만5천원, 31명 이상 60명 이하는 166만5천원, 61명 이상 90명 이하는 184만5천원, 91명 이상은 202만5천원을 지급한다. 또한 2025년까지 운영비를 연차적으로 10%씩 인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경로당 운영비 인상을 통해 어르신

들이 좀 더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체조, 노래 교실 등 건전한 여가 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참여자 모집

남성 독거 어르신의 일상생활 자립, 사회성 증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



- 대상** 남성 독거 어르신(만 65세 이상)
- 참가비** 무료
- 내용**
 - 일상생활자립(요리교실, 생활교육)
 - 사회성강화(종합미술, 원예활동, 도예체험)
 - 건강증진(인지재활, 보드게임, 요가, 발관리, 휴대폰 활용)
- 기간**
 - 상반기: 2월 ~ 6월(30명씩 2개반 운영)
 - 하반기: 7월 ~ 12월(30명씩 2개반 운영)
- 신청방법** 전화 · 방문 접수 / 사회참여팀 ☎ 043-730-2632
- 제출서류** 신청서(접수 시), 주민등록등본 1부, 우선순위 확인 서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이용 홍보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이 무엇인가요?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대상자에게 바우처(이용권)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우리지역 사회서비스 종류는 5종입니다.

서비스명	지원기준	서비스 내용 (주1회 / 12개월, 청년마음건강 주1회 / 3개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소득: 기준중위 160%이하 • 연령: 만 18세 이하	- 심리상담 - 놀이, 언어, 미술, 음악프로그램 등 - 회당시간: 50분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소득: 기준중위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연령: 만 60세 이상	- 전신안마, 지압, 운동요법 등 - 회당시간: 60분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 소득: 기준중위 120%이하 (정신장애인 140%이하) • 연령: 제한 없음	- 상담, 약물관리,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등 - 회당시간: 60분
뇌졸중 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	• 소득: 기준중위 140%이하 • 연령: 만 35세 이상	- 맞춤형 1:1 재활 서비스 실시 - 회당시간: 90분
청년마음건강 지원	• 소득: 기준 없음 • 연령: 만 19세-만 34세	- 전문심리상담 - 회당시간: 50분

- ▶ **접수기간:** 연중 가능하나, 신청자가 많으면 대기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팀(읍), 맞춤형복지팀(면)

(재)옥천군장학회 후원회원 모집안내

• 후원회원 모집안내

옥천군 교육발전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옥천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 정성어린 장학기금은 인재육성과 지역발전을 이룹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한 구좌가 필요합니다.

• (재)옥천군장학회 후원금 입금계좌

NH농협은행	328-01-013881	우체국	300111-01-006625
옥천농협	405010-51-127461	KB국민은행	405301-04-140731
옥천신협	131-002-581591	산림조합	303-11-0009069
옥천영동축산농협	173128-51-020681	옥천새마을금고	4614-09-006318-9
한성저축은행	408-01-13-245-1185	이원새마을금고	9002-1698-9780-4
IBK기업은행	570-001802-01-012	각 계좌 예금주: (재)옥천군장학회	

"함께하면 행복 두 배" 옥천군 행복나눔 연합모금

「옥천군 행복나눔」은 이웃이 이웃을 돕는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옥천 만들기를 위해 옥천군,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옥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약한 모금사업입니다.

- **옥천군 전용후원계좌** 농협 301-0206-1076-71, 예금주 충북공동모금회(옥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후원금 사용처** 지원대상자의 사유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주거비 등
- **참여문의** 옥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043)732-0120, 732-0141 F. 043)733-0120

• 옥천군행복나눔 기부내역

- 2017년 23,303,020원 / 2018년 61,790,610원 / 2019년 92,190,850원
- 2020년 158,736,550원(코로나19 성금 중 69,830,520원 포함)
- 2021년(170,681,899원)
- 2022년(135,026,880원)

CMS후원	정액을 매월 후원자의 통장에서 자동으로 인출
착한가게(기업)	중소규모의 자영업 종사자가 매출액의 일정액 후원
착한가정	가족구성원이 함께 2만원 이상 정기 기부

착한일터	직장인이 매달 급여에서 약정한 기부금을 자동으로 이체
일시후원	매월 정기 기부가 부담스럽거나 바자회 등과 같은 특별한 날을 기념한 기부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긴급 대응

아동시설 난방비 긴급 지원

목천군은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과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해 난방비를 긴급 추가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돌봄, 보호 등을 책임지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경제적 운영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을 이용하는 약 180여 명의 아동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 1월 말 난방비를 긴급 추가 지원했다. 대상 시설은 아동양육시설 1개소 지역아동센터 4개소,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 등 9개소 아동복지시설이다. 군은 하반기 운영비 지원예산 중 540여 만원을 선집행해 아동복지시설에 난방비 2개월분(1월~2월)을 지급했으며 추후 운영비는 국·도비 확보 등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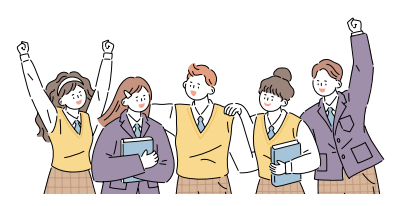
가경정예산에 편성해 보전할 계획이다. 주민복지과장은 “유례없는 한파, 경제침체 및 난방비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 부담을 덜어주어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지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동복지시설의 어려움을 살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즐거운 겨울방학 POWER-UP 활동’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

충북 목천군은 지난 8~9일 6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동안 청소년들이 신학기 준비 등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즐거운 겨울방학 POWER-UP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3개의 청소년수련시설(목천군 청소년수련관, 이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산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들이 다 함께 참여해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지역 내에 있는 화인산림욕장에서 피톤치드를 마시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산수화 권역 체험장에서 목공체험으로 나무 연필꽂이 및 모니터 선반 만들기 체험을 했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인 오상아 학생은 “산을 올라가는 게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함께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고 함께 함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충청북도에서 미혼청년 결혼유도, 중소기업(중견기업) 근속과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2023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1월 16일(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선착순 마감
- 모집인원** 목천군 9명(근로자 6, 농업인 3)
- 접수처** 목천군청 성장정책과
- 지원내용** 도내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중소기업(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또는 미혼 농업인이 매월 일정액 5년간 적립 시도·시군·기업에서 매칭 적립 / 기간 내 본인 결혼 또는 근속 만기 후 목돈 지급

근로자 월 80만원 적립 (도·시군 30, 기업 20, 근로자 30) (근속+결혼) 48백만원 + 이자(5년 만기) (근속+미혼) 36백만원 + 이자(5년 만기)	농업인 월 60만원 적립 (도·시군 30, 농업인 30) (결혼) 36백만원 + 이자(5년 만기) (미혼) 18백만원 + 이자(5년 만기)
---	--

신청방법 신청서류 작성 후 목천군청 성장정책과 방문 및 우편 신청(043-730-3783), 신청서류 및 공고문은 목천군청 공지사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천향수시네마 3월 상영작



대외비

장르 범죄, 드라마
등급 15세 관람가
국가 한국

“몰랐나? 원래 세상은 더럽고 인생은 서럽다.” 대한민국을 뒤집을 비밀 문서, 이 편을 뒤집는 놀이 대한민국을 뒤집는다.



명몽이

장르 드라마
등급 전체 관람가
국가 한국

“루니의 새 집사를 찾아라!” 완벽한 집사를 찾기 위해 제 주도로 향하는 두 형제의 여정에 느닷없는 명몽이들의 등장! 이어지는데!



스즈메의 문단속

장르 애니메이션
등급 12세 관람가
국가 일본

“이 근처에 폐허 없니? 문을 찾고 있어” 규슈의 한적한 마을에 살고 있는 소녀 ‘스즈메’는 문을 찾아 여행 중인 청년 ‘소타’를 만난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스즈메’는 문으로 손을 뻗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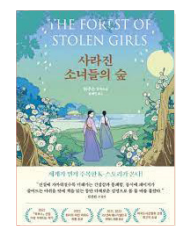


사자! 신들의 분노

장르 액션/어드벤처
등급 12세 관람가
국가 미국

신들의 힘을 갖게 된 빌리와 친구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슈퍼히어로의 삶을 즐기게 된다. 그러던 그들 앞에 잃어버린 힘을 되찾고자 그리스 여신 헤스페라와 칼립소가 나타나게 되는데...

목천군민도서관 3월 추천도서



도서명 사라진 소녀들의 숲
저자 허주은
출판사 미디어창비

1426년 조선, 열세 명의 소녀가 사라졌다! 한국인들에게도 생소한 역사, 조선 세종 때까지 존재했던 공녀(貢女)제도를 얹어놓는다. 이에 얽힌 제주 한미들의 비극, 그 비극에 긴박하게 연결된 가족사, 나아가 가부장 시대 조선 여성들의 삶을 다층적으로 엮어내며 미스터리한 사건의 중심으로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열세 명의 소녀가 사라졌음에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주인공부터, 기문의 명예를 위해 가족을 희생시키는 것을 꺼리지 않고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놓지 않으려는 양반가에 나름의 방식으로 저항하는 조연 격의 인물까지 모두 개성적이다. 조선을 배경으로 한 미스터리 서사, 그 끝에 다다른 뼈아픈 역사의 진실을 마주한다.



도서명 멘탈의 연금술
저자 보도 새피
출판사 토네이도

전 세계 순회강연을 통해 독자들에게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전파해온 작가. 멘탈의 연금술에서 ‘목표를 이루고 원하는 삶을 사는 법’에 대한 통찰 깊은 메시지를 전한다. ‘부자와 빈자, 성공과 실패,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결정적 한 가지는 바로 멘탈(mental)이다.’ 매일 붕괴를 불러오는 나약함을 벗어나 당당하고 강력한 삶을 살고 싶다는 다음 3가지에 집중해야 한다. 첫째, ‘버텨야 한다.’ 둘째, ‘두려움의 용을 쓰러뜨려야 한다.’ 셋째,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 멘탈을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지친 삶과 영혼을 다시 건강하게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옥천군 의료비 후불제 본격 시행, 1호 수혜자 나와

옥천군에 '충청북도 의료비 후불제 용자지원' 첫 수혜자가 나왔다.

2월 1일부터 충청북도 의료비 후불제 용자지원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 군민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동이면에 거주하는 A씨가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으며 관내 의료비 후불제 1호 환자로 지원받는다.

의료비 후불제 사업은 목돈 지출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에게 무이자로 3년간 용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9일 시행됐으며, 2월 1일부터는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가 확대된다.

신청자격은 기존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에서 만 65세 이상 군민, 전 연령대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으로 변경된다.

지원 범위도 임플란트, 인공관절(무릎관절·고관절), 척추 및 심뇌혈관수술(시술) 등 6개 질환에서 재활 치료비와 간병비 등이 추가된다.

농협중앙회를 통해 1인당 의료비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받은 의료비는 최대 3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면 된다.

병원 관계자는 "의료비 후불제 용자지원사업의 대상자 확대 시행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수술을 미루던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의료비 후불제 용자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6개소로 종합병원인 옥천성모병원과 정근식 치과의원, 이한규치과의원, 김앤정치과의원, 본치과의원 서울백세치과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노인의치보철 지원사업 ·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폐지

옥천군 보건소는 시책 일몰제 추진에 따라 올해부터 '노인의치보철 지원사업'과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폐지한다.

노인의치보철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의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2011년부터 중단되었으며, 무료시술 지원 후 사용률 저조와 신청자 감소가 폐지 이유다.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10년 보장의 보험상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험료 납입 대비 보장 혜택 대상자가 적어 사업에 대한 체감률이 낮음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폐지한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용자지원 대상자 확대 2월 1일부터



의료비후불제로 경제적 부담으로 받지 못한 수술, 장기 무이자 분할상환으로 치료받으세요!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지원병원 관내 협약 종합병원 및 치과

• 종합병원: 옥천성모병원

• 치과의원: 정근식치과의원, 이한규치과의원, 본치과의원, 김앤정치과의원, 서울백세치과의원

지원질환 임플란트,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지원내용 무이자 용자(대출) 방식 ※ 농협중앙회 옥천군지부(보건소 앞)

• **대출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후견인)

• **지원한도** 1인 50만원 ~ 300만원

• **상환조건** 3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문의 옥천군보건소 의약관리팀 ☎ 043-730-2161~3

보건칼럼 겨울철 피부 관리

날씨가 춥고 건조한 겨울에는 우리 피부를 괴롭히는 가려움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번 지면에서는 가려움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추운 계절과 관련이 있는 피부 장벽 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부는 외부 환경이 춥고 건조하다고 해도 피부 장벽이 있어서 과다 수분 손실과 건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피부 장벽을 감싸고 있는 유분 성분이 감소하여 쉽게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겨울에는 보습제를 사용하여 피부 장벽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 특히 밤중에 가려움증이 더 심한 경우가 많은데요. 밤에는 실제로 염증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감소하여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밖이 춥기 때문에 집에 들어와 따뜻한 물로 씻고, 따뜻한 곳에 있다 보면 피부를 통한 수분 손실이 증가하여 건조해지고 가려워지기 쉽

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욕 직후에 보습제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층의 경우 피부가 노화되면서 유분이 감소하게 됩니다. 유분이 감소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외부 자극에 더 취약하게 되고, 예민하고 건조하고 간지러운 피부로 변합니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노년층에서는 피부에 보습제를 꼼꼼하게 사용해서 관리해 줘야 합니다.

음식 알레르기과 같이 가려움증과 직접 연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체온을 올리는 작용을 하는 음식들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과 맵고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은 체온을 갑자기 올리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고, 커피나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도 가려움증에 영향이 있으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피부 건조증이 및 건성습진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피부 건조증 초기에는 목욕과

세안 후에 피부가 붉어지고 땅기는 느낌만 있지만 더 진행하여 피부가 지속적으로 건조해지면 피부에 각질이 일어나면서 미세하게 갈라지고, 이때는 땅김 증상이 세안 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발생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피부염인 건성습진으로 발전합니다. 건성습진은 더욱 간지럽고 피부 장벽 손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다면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하여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병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김영은
옥천군보건소 공중보건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

택시 및 대중교통, 의료시설 등 일부 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주의 필요

지난 1월 30일 0시를 기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됐지만, 옥천군 병원 등 의료기관과 버스 택시 대중교통 이용 시,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실내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있으며, 의료기관은 병원뿐만 아니라 약국도 포함된다. 대중교통은 버스, 택시, 유치원이나

학원 등 통학에 사용되는 대형차량이나 전세버스 역시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돼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제됐다. 옥천군은 "마스크 의무착용이 권고로 완화됐지만 감염이 높은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단속시간 평일 08:00~18:00
※ 어린이 보호구역: 평일 08:00~20:00

단속유예 점심시간(11:30~13:30), 토·일, 공휴일

단속대상 30분 이상 주·정차 차량 ※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즉시단속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대상
①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즉시단속(30분 유예 없음) - 점심시간도 단속 - 토·일, 공휴일 제외
② 횡단보도(정지선 침범 포함)	즉시단속(30분 유예 없음) - 점심시간도 단속 - 공휴일 포함 24시간 단속
③ 소화전(소방시설)	
④ 버스정류장	
⑤ 교차로 모퉁이	

기타사항 개구리 주차 및 인도주차도 단속대상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2023. 3. 8. (수)
오전 7시~오후 5시

깨끗한 경쟁과 현명한 선택은
희망찬 조합으로 가는 길!

코로나19 격리자

- 별도의 특별투표소(нат 12시 ~ 오후 5시) 등에서 투표 가능
- 자세한 방법은 소속 조합 또는 옥천군선거위에 문의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13990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억 원
선거 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

옥천군과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재난에 대비하세요!

옥천군은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이란 정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보험입니다.

대상사실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대상재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상품특징

- 총 보험료의 55~92% 정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자 최대 92%, 일반 55~62%)
- 주택 소유자 및 주택 세입자(동산)도 가입 가능
- 단체계약, 계속·장기계약 보험료 할인

다양한 특약

- 주택침수손해불보장, 소파손해불보장,
- 하천고수부지온실강풍·대설보장특약, 단순비닐파손 특약
- 지진불보장 특약

문의
옥천군청 안전건설과 ☎ 043-730-3523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3~7

※ 가입안내는 안전건설과와 각 읍·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일반가입자의 경우 민영보험사 대표번호 전화상담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환경부가 지원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신청 ON 하세요!

*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 및 운영 주체 중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희망자

완속충전 장점

- 전기차 완속충전은 급속에 비해 충전요금이 저렴하고, 자동차 배터리를 보호하는 장점 보유

지원대상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 및 운영 주체 중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희망자 모두 신청 가능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23년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보조금 지원 단가>

구분	보조금(단위: 만원)
30kW 이상	500(12), 400(27), 350(37) 이상
11kW 이상	160(12), 140(27)-57), 120(67) 이상
7kW-11kW 미만	140(12), 120(27)-57), 100(67) 이상
카오희용 충전기	140(27)
전력분배용 충전기(7kw)	110(27)
과금용 콘센트	35(12)

* 30kW 이상 : 대형마트,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우선 지원

※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을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1.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접속 (www.ev.or.kr)
2. '공용 완속충전시설 직접신청' 버튼 클릭
3. 충전기 수량 등 확인 후 신청서 작성

QR코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바로가기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직접신청 문의
한국환경공단 1899-3638

※ 단, 상황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배정될 수 있으며, 설치 후 5년 이내에 열거 시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지원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자동차의 운행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이자차액 지원

옥천군에서는 '2023년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또는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청년창업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원(청년창업은 1억원) 한도로 연 3% 이자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옥천읍 행정복지센터 3층)을 방문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군과 협

약한 6개 금융기관에서 용자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재단홈페이지(www.cbsinbo.or.kr)에서 상담예약제를 시행한다. 한편, 군에서는 지난해 800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8억 여 원의 이자차액을 지원했으며, 이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보다 3배 이상 확대된 금액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과 초기 창업자를 집중 지원한 결과이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박차

옥천군은 경제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관내 등록된 중소기업에 최대 2억원 용자 한도로 연 3%의 이자를 보전하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업인 '중소기업 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해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공장 기반시설 개·보수 공사를 지원한다.

군은 올해 총 6억원을 투입해 2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금액을 작년 2천5백만원에서 5백만원 증액해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한 기업이 제품 홍보를 위해 국내·외 박람회 참가 시 부스비, 홍보비, 통역비 등을 지원하는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국내 박람회 참가 시 최대 200만원, 국외 박람회 참가 시 최대 500만원으로 총사업비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향수OK카드 인센티브 올해도 계속된다

향수OK카드 인센티브 10% 지급, 한도 50만원으로 하향 조정



옥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수OK카드 인센티브를 2023년에도 10%로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인센티브 한도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월 50만원을 사용할 경우 5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군은 도비 일부를 포함하여 약 63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했다. 향수OK카드는 2020년 6월 발행을 시작한 카드형 옥천사랑상품권으로 누적 4만3천장 이상의 카드가 발급돼 사용되고 있으며, 2022년도에 850억 이상이 발행되는 등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군은 2022년 설 명절(1월), 가정의 달(5월), 연말(12월 19일부터 31일)에 기존 10% 인센티브 외에 5%의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소비촉진지원금 지급 이벤트를 실시해 지역 내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2

어르신을 위한 소비생활 꿀팁

건강기능식품편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피해사례

- 사은품을 준다면서 개인 정보를 요구해요**
꿀팁!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의도하지 않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제품을 일의로 개봉하거나, 개봉을 유도해요**
꿀팁! 제품을 개봉하는 경우, 환불이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계약취소 및 환불을 거부해요**
꿀팁! 제품을 개봉하기 전이라면,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별도의 추가금액 없이 전액환불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의 제품설명과 달리 효과가 없어요**
꿀팁!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기 때문에,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믿지 마세요!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예방가이드

- 충동구매보다는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허위·과장 광고, 제품의 효능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계약서 판매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영수증 등 관련서류는 꼭 보관합니다.
-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제품을 개봉하지 않고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으로 통보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건강기능식품」 인지 확인하고, 섭취 전 전문가(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세요.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피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로 전화하세요!

한국소비자원

함께해요!

경제과 일자리센터 ☎ 043-730-3396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새로일하기 센터 ☎ 043-731-9542/9532

사업장명	채용분야	임금	문의
피에스플랜텍	기계·금속분야 단순 종사원	시급 15,000원 이상~25,000원	043-731-8654
(주)더조은기술단	인허가설계·산림설계기술자	월 400~600만원	043-733-8522
(주)블루마운트테크놀로지	기타화학제품 생산기계조작원	시급 11,000원 이상	043-733-0055
(주)성진기업	중·대형 화물차 운전원	월 250~300만원	043-733-9248
(주)보령물산	총무및일반 사무원	연 35,700,000원 이상	043-733-9924
옥천꽃등대성모 노인요양원	시설요양보호사	월 2,020,000 이상	043-733-7505
푸른농산	식품분야 단순종사원	월 2,010,580원 이상	043-731-1749
(주)중원모터스	자동차 정비원	월 300만~400만	043-731-7838
경산토건	토목안전·환경·품질 기술자	연 40,000,000원 이상~65,000,000원	070-4450-4773
(주)이담	식품분야 단순종사원	연 25,200,000원 이상~26,400,000원	043-731-1313

사업장명	채용분야	임금	문의
창대유리산업	복층유리생산직원	월 210만원~250만원	043-733-5401
대전금속	생산직(제품 선별 및 사상작업)	시급 9,620원 이상	043-732-8528
(주)메탈크레프트코리아	제품 광고영업원 일반영업원	연 50,000,000원 이상	043-731-7230
(주)에이스멀치	사무직원	월 220만원~240만원	043-733-0605
(주)플리피아	플라스틱제품 생산 / 가공직	시급 10,600원 이상	043-733-1477
(주)건영제과	식품관련 생산직 사원(기계조작)	시급 9,620원 이상	043-733-7100
(주)떡갈나무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월 230만원 이상	043-732-1132
(주)에이스헬스케어	제조단순종사원	시급 10,000원 이상	043-730-2800
(주)에이엔씨유통	쇼핑몰 택배 준비원	월 2,700,000원 이상	043-731-1598
(주)은혜농산	배송직직원(새벽 or 일반)	월 2,500,000원 이상	043-733-5846



식량산업종합계획 최종 승인

옥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역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지난달 6일 밝혔다.

군은 2021년부터 지역 내 농협, 민간정미소, 들녘경영체, 식량작물 생산대표조직 관련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꾸준히 개최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해 왔다.

또한 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식량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쌀을 비롯한 식량작물의 생산, 가공, 유통 계획 수립, 적정 투자 계획과 농가조직화, 기존 시설의 가동률 제고 등 종합적인 분석과 지원 투자를 통한 식량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수립했다.

군은 이를 기반으로 10월부터 진행된 3단계(서면-현장-발표)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평가를 통과했다.

이번 식량산업발전계획 최종 승인으로 군은 향후 5년간 식량산업분야의 국비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우선 부여받았으며, 공공비축미 배정과 정부 보급종 공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확보했다.

이현철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 옥천군 미곡 및 밭작물 농업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옥천에서 생산되는 미곡에 옥천군만의 브랜드를 붙여 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감은 물론 밭작물의 고품질화를 통해 식량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점 세척·소독시설 운영

충북 옥천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 세척·소독시설(옥천읍 성왕로 1135)을 신축 준공하고 지난 18일부터 운영한다.

군은 지난 17일 옥천군수, 군의원, 축산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거점 세척·소독시설은 사업비 12억2천6백만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1,407㎡, 건축면적 190.89㎡ 규모로 조성돼 우시장 맞은편에서 임시 운영

중이던 소독시설을 대체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상설 거점 소독소가 없어 가축방역에 취약하고 축산차량 소독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에 설치된 시설은 24시간 전자동 시스템을 도입해 상시 소독이 가능하고 옥천IC와 5분 거리로 접근성이 좋아 가축방역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철 농업정책과장은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통해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가축 질병 예방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충북형 도시농부

- 농촌 일손돕고~
- 귀농·귀촌 경험하고~

농부에 참여하세요!

참여자격 만 20~75세 비농업인 유휴인력

하시는일 농작물 파종, 수확, 정식 등

지원내용 1일 4시간 6만원 인건비 외 교통비, 상해보험 가입 등 지원

문의처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 ☎ 043-730-3242

제15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 7월에 만나요!

충북 옥천의 여름철 대표 과일축제인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 일정이 확정됐다.

군은 최근 포도·복숭아연합회가 참석한 가운데 ‘축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제15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를 오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옥천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2007년 제1회 옥천포도축제를 시작으로 올해 15회를 맞은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개최되어 4억7천만원의 농특산물 판매 실적을 올렸다.

옥천군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커 고품질 과일 생산의 최적지이며, 대청호 주변의 기름진 땅으로 포도, 복숭아의 맛과 향이 뛰어나 전국적으로도 입소문이 자자해 두터운 마니아층을 유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방문객들에게는 저렴하고 품질 좋은 농특산물 구입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있어서는 관광객 유치와 농업인 소득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달의 영농

분야	핵심기술 및 정보	분야	핵심기술 및 정보
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볍씨준비 벼 보급종 공급 1.10.~3.31.(보급종 종자신청 못한 농가 우량종자 자율교환 종자 확보) • 벼 저온저장 벼 저장은 온도 15℃ 이하 및 습도 70% 이하 유지 • 땅심높이기 객토, 유기물 및 토양개량제, 깊이갈이, 배수개선 등 종합적 개량 관리 • 농기계관리 연료탱크, 엔진오일, 냉각수, 배터리 점검 및 정비 	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정도구 소독 과수 병 예방을 위해 전정 도구 및 장비 반드시 소독 후 사용 - 70% 알코올 또는 락스 20배 희석액에 10초이상 담그거나 끓고루 살포 • 동해경감 벗짚 및 부직포 피복, 전정시기 늦추기 등 동해 경감기술 실천 - 동해 발생 시 주간부 및 가지 피해 확산 방지 응급작업 실시(고무활용 주간부 밴딩으로 동해부위 파열 방지) • 동계약제살포 기계유유제 월동 병해충 방제약제 사용 주의(2월 하순~3월 상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포농도는 복숭아·사과 800~1,000㎖ / 물20ℓ, 배: 500~670㎖ / 물20ℓ - 수세가 약한 나무는 약해 우려가 있으니 농도를 낮게 살포하거나, 살포하지 않음 - 특히 포도에는 살포하지 말고, 알칼리성약제(석회유황합제, 석회보르도액)와 섞어 쓰면 안됨
밭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류 봄파종은 적합품종 선택, 파종시기는 2월 중~하순(한계기 3월 5일) • 감자 감자 파종 20~30일경(2월 하순~3월 중순) 산광썩티우기 실시(1~2cm) • 고구마 씨고구마 준비 및 소독, 육묘온상 적기 설치 • 콩·팥종자 신청 신청기간: 2.1.~3.17. 읍·면 산업팀 	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멧돼지 농가접근 차단 및 차단방역 철저 • 가축 및 환경관리 가축에 적절한 사양·위생관리 및 환경관리 • 축사관리 화재예방 및 정기적인 안전점검, 시설물 보수 • AI 차단방역 철저 AI·구제역 예방 정기적인 소독, 차단방역 철저 • 사료작물 겨울나기 후 눌러주기, 웃거름 주기 • 양봉 월동기간 꿀벌 봉군내 4℃~5℃의 안정된 온도유지와 주기적인 환기 매우 중요
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예방 분전반 먼지제거, 소화기 배치, 보조난방 사용시 안전주의 • 시설채소 시설내 환경관리로 병발생 억제 및 발생초기 적용약제로 방제 • 고추육묘 파종상 관리, 싹 틈 후 10일 경부터 2~3일 간격 온수 오션관수 • 마늘·양파 서릿발 피해 포장 눌러주기 및 흙덮기, 노균병 예방 		
특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 빙기 과습 방지를 위한 배수관리, 개감종자는 발아 전 파종 - 인삼밭에 서릿발이 심할 경우에는 동해 및 건조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복토를 실시하고 가볍게 진압하는 것이 좋음 • 느타리버섯 봄 재배 하려는 농가는 중·저온성 우량 품종 선택 • 오미자 동계전정실시: 해동 전 2월 말까지 실시 		

옥천군의회, 출범 32년만에 의회기 게양식 개최

옥천군의회(의장 박한범)는 계묘년 새해 업무 첫날인 지난 1월 2일 의회의 자주적 독립성 강화를 위해 옥천군 청사 건물에 의회기를 게양했다.

1991년 4월 15일 옥천군의회가 출범한 이후 32년 만에 청사 게양대에서 의회기가 처음 게양된 것으로 이날 박한범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그 의미를 높였다.

옥천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의회기는 비전과 도약을 나타내는 하늘

색 바탕에 풍요를 상징하는 황금색 무궁화가 형상화됐으며, 내부는 한글로 '의회' 하단에는 '옥천군의회'라고 표시하여 국기 및 군기 등과 함께 나란히 연중 게양될 계획이다.

옥천군의회(의장 박한범)는 “옥천군의회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자주적 의지를 상징하기 위해 의회기를 게양하게 됐다”며 이번 의회기 게양을 계기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옥천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며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충훈탑 참배를 시작으로 계묘년 시작

옥천군의회(의장 박한범)는 지난 1월 2일 충훈탑 참배를 시작으로 계묘년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옥천군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관계자들은 이날 옥천군 충훈공원을 찾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새해에도 '군민에게 신뢰받는 옥천군의회' 실현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설맞이 복지시설 위문

옥천군의회(의장 박한범)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17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영실애육원과 부활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나눔과 사랑을 실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입소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각 시설 입구에서 과자·라면 등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였으며, 관계자로부터 시설 운영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옥천군의회 의원들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으나마 기쁨과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 항상 여러분을 생각하는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옥천군의회는 매년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

옥천군의회(의장 박한범)는 지난 1월 10일 집행부 관련부서(농촌활력과)와 함께 전라북도 정읍시를 방문해 귀농귀촌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체계적인 귀농귀촌 준비 지원과 안정적 정착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지원센터 우수사례를 우리군에 접목시켜 업무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정읍시는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하였고, 대한민국 귀농귀촌 행복 박람회에서도 귀농귀촌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먼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과정 등에 대해 청취하였으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귀농귀촌 상담자를 위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교육

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과 실습농장 및 거주시설을 견학하고, 센터장으로부터 귀농귀촌 유치지원 및 활성화 지원사업, 체류형 실습농장 운영 현황과 노하우 등을 전수받았다.

옥천군의회는 다양해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과 시대적 상황에 따른 주거 형태 다변화 추세에 대응코자 중앙정부의 관련 시책 및 귀농귀촌 의정정책 발굴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의원 정례간담회 개최

옥천군의회는 지난 1월 17일(화) 간담회실에서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례간담회에서 집행부와 협의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안건명	제출부서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래전략국 성장정책과
제8기(2023~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추진현황 보고	보건소 보건행정과

주요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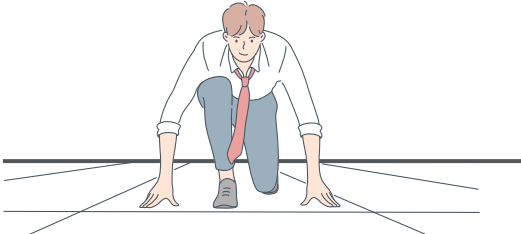
- ✓ 2월 정례 의원간담회 - 2. 7.(화) 10:00 ~ / 간담회실
- ✓ 제303회 임시회 - 2. 21.(화) ~ 2. 24.(금) / 4일간 /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 본 일정은 운영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23년 옥천군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 회기운영: 총 8회 90일(정례회 2회 46일, 임시회 6회 44일)



1월

1.17.(화)
사회복지시설 방문
- 격려품 전달 및 애로사항 청취
- 간담회 병행

2월

2.13.~2.17.(5일)
군수 읍·면 순방

2.21.~2.24.(4일)
제303회 임시회
-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청취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4월

4.4.~4.12.(9일)
제304회 임시회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2023년도 제1회 추경)

4.21~4.23.(3일)
유채꽃축제(예정)

4.29.~4.30.(2일)
웃순축제(예정)



3월

3월 중
상반기 의정연수
청소년의회교실
-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선진의정 사례 파악

3.31.~4.2.(3일)
묘목축제

5월

5.11.~5.14.(4일)
지용제(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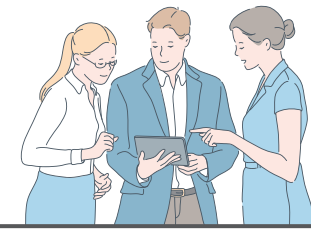
5.16.~5.24.(9일)
제305회 임시회
- 특별위원회 운영(주요사업장 점검 등)

6월

6.12.~6.26.(15일간)
제306회 제1차정례회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

7월

7.28.~7.30.(3일)
포도·복숭아 축제(예정)



10월

10.11.~10.13.(3일)
제308회 임시회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10월 중
중봉총렬제
하반기 의정연수
-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선진의정 사례 파악

9월

9.12.~9.20.(9일)
제307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도 제2회 추경)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활동계획서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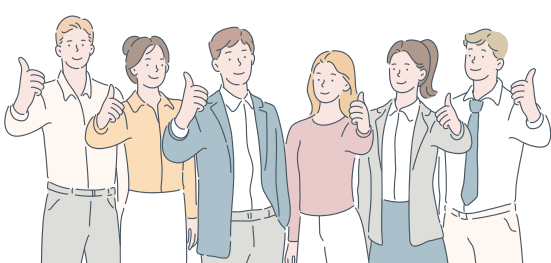
9.26.(화)
사회복지시설 방문
- 격려품 전달 및 애로사항 청취
- 간담회 병행

11월

10.31.~11.9.(10일)
제309회 임시회
- 202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

12월

11.22.~12.22.(31일)
제310회 제2차정례회
- 2023년 행정사무감사
-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사



겨울철 얼음낚시객 안전사고 예방 활동



옥천경찰서 동이파출소(소장 정광준)는 최근 한파 이후 결빙 상태가 좋지 않은 저수지 등 내수면 얼음 낚시객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겨울철 강추위가 주춤하는 동안 얼음 결빙 상태가 약해져 수난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이동 및 얼음낚시 등을 자제해야 한다. 최근 인근 영동지역에서 얼음판이 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에 동이파출소에서는 얼음낚시가 예상되는 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얼음낚시객에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방송을 병행하는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정광준 동이파출소장은 “해빙기엔 얼음 두께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얇고 쉽게 깨지기 때문에,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 등 레저활동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발전협의회와 함께 설 맞이 복지시설 위문


옥천경찰서는 다가오는 설을 맞이하여 경찰발전협의회와 함께 옥천읍 소재 복지시설 영실애육원을 방문하여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절 위문품 전달은 옥천경찰서와 경찰발전협의회가 함께 아동들에게 화장지, 마스크 등 생필품 지원한 것으로 한파로 몸과 마음이 얼어붙

은 시기에 설 명절을 앞두고 온정의 손길을 나누기 위해 마련 됐다.


옥천경찰서장은 애육원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옥천경찰서와 경찰발전협의회도 지속적인 위문과 격려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안심콜** 등록하세요!

안심콜 서비스




119입니다.
김소방 할머니 맞으시죠?
허리가 아프신가요?


이름: 김소방
주소: 소방아파트
질병: 허리통증

119안심콜서비스란?


119 안심콜 서비스에 사전 등록된 국민이 119로 신고하면 입력된 개인정보(병력, 질환 등)가 신고화면에 표출,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정보가 전달되어 신속하게 적절한 현장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119안심콜 접속
www.119.go.kr



안심콜 신청
정보가입



등록된 전화번호로
신고

*등록된 개인정보는 긴급구조활동상 참고 정보로만 이용됩니다.

충청북도 출산장려 시책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

행복하고 건강한 임산부 지킴이
충청북도소방본부가 함께합니다.





충청북도소방본부
CHUNGBUK FIRE SERVICE HEADQUARTER

새학년 교육과정 준비를 위한 워크숍 추진



옥천교육지원청은 지난달 11일, 안정적인 새학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내 학교담당자를 대상으로 『새학년 교육과정 준비기간』 워크숍을 진행했다.

『새학년 교육과정 준비기간』은 3월 안정된 새학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가 함께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기간이다.

특히, 올해는 새학년 교육과정 준비기간에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발전 자체 진단'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학교발전 자체 진단은 자체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학교운영 진단과 분석을 통해 새로운 학교 역할을 정립하고 발전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관내 학교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단위학교에서 새학년 교육과정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워크숍은 새학년 교육과정 준비기간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발전 자체 진단도구를 실제로 활용해 보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워크숍은 초, 중등학교를 구분해서 운영했으며, 작년 12월에 초등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영했고, 이번에는 중·고등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영했다.

옥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학교 간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발전 자체 진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옥천형 현장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학년도 주요업무 설명회 개최

옥천교육지원청은 27일, 옥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 행정실장, 교무부장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주요업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옥천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새롭게 수립한 교육비전인 '꿈꾸는 아이 동행하는 옥천교육'을 토대로 2022년 주요성과 및 2023년 옥천교육의 교육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중점사업인 정지용학교 및 합추름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안내, 팀별 업무추진 관련 설명과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명과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옥천교육지원청은 2022년 도내 10개 시군 중 학교지원 종합만족도 우수기관 선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최우수 기관 선정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가 있었다.

조경애 교육장은 "교육 주체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실천을 통해 교육지원청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천교육도서관, 2023년 첫 교육가족 재능나눔 프로젝트 청소년 재능나눔 1탄 어린이 아이돌 댄스교실

옥천교육도서관은 겨울방학 기간 도서관 휴관일을 이용한 어린이 댄스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강연은 케이팝 안무가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고등학생 댄서 지수민양의 재능나눔을 통해 운영되며 2회차에 걸쳐 댄스 기본기 배우기, 인기 케이팝 포인트 댄스 익히기, 아이돌 댄스 1곡 마스터하기 등으로 구성된다.

특강은 옥천교육도서관 3층 청소년 문화공간에서 1월 30일, 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12시에 운영되며,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강생 모집이 진행 중이다.

옥천교육도서관 담당자는 청소년 문화공간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다채로운 체험과 학습을 통해 꿈을 찾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재능나눔을 통해 자신의 장기를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옥천의 춤신춤원
고등학생 누나/언니의 재능나눔 프로젝트

즐거운 겨울방학을 위한 **선착순**

K-POP 아이돌 댄스 수업

옥천교육도서관에서
초등학생 케이팝 댄스수업을 실시합니다.



특강 안내	
특강 일시	모집 대상
2023. 1. 30. / 2. 20. 월요일 (총 2회) 오전 10시~12시	초등학교 5-6학년 선착순 6명

프로그램내용
이것만 알면 몸치탈출! 댄스 기본기 배우기
인기있는 케이팝 포인트 댄스 배우기
인기있는 아이돌 댄스 1곡 마스터하기

신청 및 문의

소서리 작은뱀티에도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이 있었다

박래영(朴來英)선생 기념비 앞에 서서

天性溫和 好施義德 천성이 온화하고 의로운 덕 배움을 좋아하여
 針與醫方 救急活命 침과 의술로서 위급할 때 생명을 구하셨네.
 夜間訓師 多年勤勞 야간 선생님이로 여러 해 근로하시면서
 無學靑少 文盲退治 무학 청소년들의 문맹을 퇴치하셨네.
 論其功績 山高水長 그 공적을 논하러니 산처럼 높이 솟고 물처럼 길게 흐르니
 樹此貞珉 不忘恩德 여기 비석을 세워 그 은덕을 잊지 않으리.



옛 관아가 있었던 곳이나 유서 깊은 마을을 지나노라면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썼던 인물들의 공덕이나 선행을 기리기 위한 많은 비석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언제 왜 세웠는지에 관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내가 사는 동네 청성면 소서리 작은뱀티 어귀에도 비석군이 형성되어 있다. 이사 직후 일삼아 훑어는 봤지만 우리 동네의 내력에 대해 알지를 못하여 그저 눈요기 정도에 지나지 않았었다. 그러다 작년 봄, 동네분으로부터 타동네 어느 어르신께 '야학선생 박래영'의 생전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나는 다시 동네 어르신들께 당시 생전 그분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듣고 다시금 세세하게 비문을 읽고 뜻을 풀이해 알게 되었다.

비 전면에는 '先生朴來英記念碑'를 중심으로 양옆에 그분의 업적을 48자로 간결하게 찬(撰)하여 새겼다.

나는 학창시절에 읽었던 심훈의 <상록수>의 주인공과 너무도 비슷하다 생각하며 그 '야학선생'의 선구자적인 일대기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

비문에 새겨진 대로 박래영 선생은 급한 환자가 생기면 침과 탕약으로 구급을 하고 풍수에도 능해 마을의 경사나 흉사 시 길일과 터를 잡아 주어 답답함을 덜어주는 등 많은 일들 중 특히나 주목할 점은 글자를 알지 못해 만사가 어렵고 애가 타고 안타까운 이웃을 위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가르쳐 주는 야학을 했다는 점과 마을 화합을 위해 무던히도 애썼다는 점이였다.

타동네 어르신이 '소서리에 산다'는 말 한마디에 기력이 많이 쇠하신 중에도 급화색을 하며 '내가 그 어른 덕에 글을 깨쳐 사람 노릇을 하게 됐다'며 강조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맙고 그리워하기를 마치 그분을 대하듯 하였다는 말에 내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몇몇 분들께 여쭙니 모두 위 어르신과 똑같은 옛 말씀을 해주셨다, 매년 만국기를 휘날리며 크게 마을 운동을 개최하여 마을의 안녕과 화합을 이루고 마을 사람들의 어려운 일처리를 해결해주는 등 관청에서도 헤아려 주지 못하는 온갖 일을 해결해 주어 모든 이들이 의지하고 큰 어른으로 존경했다는 찬사가 이구동성으로 이어졌다. 급기야

동네에서 동구에 공덕비를 세우고 덕을 기리니 선생은 비문이 너무 과찬이라며 겸손함까지 겸비했다고 한다.

나는 높은 관직을 가지거나 큰 재물을 써야만 업적이 위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분처럼 음지에서 끊임없이 봉사하고 헌신하여 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칭송을 받는다면 그 또한 위대한 족적을 남긴 것이리라.

안타깝게도 나의 지식이 미력하여 미치지 못해 힘에 부치니 나의 바람을 말하자면, 관청이나 관련기관, 또는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뜻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직은 그때의 생생한 기억과 추억이 남아있는 몇몇 어르신들이 계시는 지금, 더 늦기 전에 하루빨리 그분들의 기억을 되새겨 듣고 기록해 놓아 아름다운 업적을 후세의 표상으로 남겨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고명선
청성면 소서리

'옥천의 미래' 아기탄생을 축하합니다



4대가 한마을에 살아요.

고명선(이원면)



우리 하준이는 증조할아버지와 함께 같은 마을에 살고 있어요. 올해 귀농 1년 차라 힘든 날도 많지만, 하준이의 웃는 얼굴 때문에 매일매일 행복해요. 이번 계묘년 저희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건

강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하준아, 사랑해♡♡♡

우리 피로회복제!

김혜정(옥천읍)



아직 밤과 낮이 없이 힘들긴 하지만 우리 첫아이, 준서만 보면 피로가 사르르 녹아내려요. 이래서 둘째도 생각하게 되나 봐요. 건강하고 착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준서야? 우리 곁에 와줘서 너무 고맙고, 엄마 아빠가 많이 많이 사랑해♡♡♡

겨울 연가

정애옥(안남면)

밤새 내렸는지 지상은 이미 아무것도 들리지 않은 거대한 캔버스를 펼친 듯하다.

젓빛 하늘은 하고픈 말들이 저리 많은지 수많은 언어를 함박눈으로 펄펄 내린다. 흰 약처럼 쓰디쓴 고백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린다.

출근길에 차 앞 유리창 와이퍼는 분주히 움직인다. 바짝 언 가로수 나무들이 겨우 숨을 고르는 37번 국도 길, 눈보라 성긴 바람이 연신 차 길을 쓸어낸다. 차가 지나갈 때마다 북설 바람에 눈꽃이 파도의 흰 거품처럼 쪼르륵 말려 따라간다. 길마다 차량은 거북이걸음으로 느릿느릿하다.

근무지 장계관광지에 도착하니 내리던 눈발이 할 말을 다 했는지 뜸해지고 있었다. 눈길 닿는 곳마다 온통 새하얀 눈으로 덮여있다. 사무실 앞 느티나무 가지마다 흰 눈꽃이 활짝 피어 환호하듯 서 있다.

이곳 장계리 향수 30리, 구읍에서 12km 떨어진 멋진 신세계는 시인 정지용의 시 문학 세계를 해석, 공공 예술로 빛은 아트 벨트다. 금강 줄기 상류에 위치한 시 문학 공원으로서는 시와 자연과 더불어 시인의 원고지가 생각나는 모단광장이 있다. 시판에는 시인의 삶과 문학을 향수 별자리로 표현해 놓았다. 시인의 연보 및 지용 문학상 등을 볼 수 있는 출발점이다. 일곱 걸음 산책로

와 대청호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시를 감상할 수 있는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창밖을 보고 있자니 가슴 깊은 곳에서 신선한 바람이 일었다. 단단히 옷깃을 여미고 시인 정지용의 시 '꽃과 빗' 시어 중 '일곱 걸음'의 시어를 따 인용한 산책로로 발길을 잡았다. 발을 떼어 놓을 때마다 뾰드득 뾰드득 겨울 연가를 노래하는 듯하다.

대청호 매향 바람은 꼭꼭 여민 옷깃을 사정없이 헤집고 내 뺨을 따갑게 내려친다. 한 발 한 발 땀 때마다 싸목 싸목 신발 앞 코에 눈꽃이 묻어난다. 지용선생의 오월 베타이 시어처럼 휘어진 산책로 길이 앞장을 섰다. 흰 양탄자 위에 발자국이 따라 움직인다. 꽃무늬, 세모, 네모 그림을 그렸다. 모양이 지용문학상 시비와 어우러져 마치 설치 미술 작품과 같다. 바람이 불 때마다 줄지어 선 나뭇가지에 쌓였던 눈꽃이 하얗게 날린다.

이 은빛 적요에 흠뻑 취해 미끄러질 듯 비틀거리며 걸었다. 뽕뽕 얼어붙은 금강, 대청호도 따라나선다. 강변의 잔설이 곱게 펼쳐져 눈이 시리다. 가슴까지 와닿는 시린 순수 백야는 태고의 정적을 담은 세상에서 겨울의 꿈을 꾸는 듯하다. 주변 풍경이 시처럼 일렁였다. 침묵에 잠긴 나무도 강물도 칼바람이 불어와 뽕뽕 묶어둔 채 시간

마저 동여매어 놓은 듯하다.

한겨울 무거운 날씨에도 끊어질 듯 이어지는 인적의 발걸음에서 겨울 이야기는 반복된다. 마치 수목화의 풍경화 속에서 튀어나온 한 폭의 설경이다. 맑고 청정한 물과 향수의 고장 금강에서 시를 찾고 시성을 읽게 된다. 이는 한 시인의 삶에서 숨을 찾고 지친 회색 삶을 내려놓고 싶은 이들이 이곳 금강으로 모여든다.

산책로 바람의 웅얼거림을 들으며 산책로를 걷고 있노라니, 강변에는 허리 굽힌 갈대와 억새들이 등을 돌려 매향 바람을 가르며 연신 추억이다. 폭설에도 끄떡없는 이들의 호기에 내 기가 주춤한다. 머지않아 저들의 호기도 곧 사라질 것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모습일 뿐 삶과 죽음은 한 폭의 그림이다.

강물과 함께 얼어붙은 선착장에 묶여있는 고깃배가 강가의 오종종한 무리의 갯버들과 함께 외로운 시간을 보내며 묵언에 잠겨 있다. 손끝에 시려오는 혹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하얀 입김을 뿜어내는 대청호의 깊고 넓은 큰 품에 안겨 훈풍의 따뜻한 새봄을 기다리고 있다.

오후가 되자 찬바람이 눈보라를 일으키며, 지난 가을 떨어진 몇 잎 남은 낙엽을 훑고 지나갔다. 그 뒤를 한풀 꺾인 동장군의 등이 저만치 보인다.

독자퀴즈 QUIZ

○○은 조선시대 옥천군 관아가 있던 곳으로 1917년 군청이 경부선 철도가 통과하는 옥천읍 삼양리로 이전되면서 구읍으로 불리게 됐다. 정지용생가, 육영수생가, 옥천향교, 옥주사마소 등 문화유적이 즐비하다.

○○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 퀴즈 정답은 옥천소식 2월호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과 요령은 옆의 '참여를 기다립니다'와 같습니다.

※ 독자퀴즈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10명을 추첨해 소정의 선물(농협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상품 발송을 위해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1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 신문식(옥천읍) 유상순(옥천읍)
- 박순덕(부산금정구) 김용식(옥천읍)
- 김동식(대전동구) 안주혁(대전서구)
- 이임순(하남시) 김경식(대전동구)
- 이종근(옥천읍) 이해주(옥천읍)

정답

9 0 0 0

참여를 기다립니다

생활 주변 이야기나 시, 사진, 그림 등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들께 소정의 선물(농협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필수) A4 용지 1매 내외(12pt) 분량 원고를 2월 28일(화)까지 우편(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99 기획예산담당관) 또는 이메일(jckman01@korea.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옥천소식은 무료로 배부하는 군정소식지입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우편이나 전화 또는 옥천군청 홈페이지 (www.oc.go.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병역 근무자 등 출향인에게도 가족들이 대신 신청하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고향소식을 선물하세요.

문의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팀 ☎ 043-730-3065



소중한 아기탄생 소식 전해요

사랑스러운 아기의 사진과 축하 메시지를 옥천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kdh78119@korea.kr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권과 함께 아기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도록 옥천소식지 3부를 보내드립니다. 친가와 외가에도 옥천소식지를 선물해 보세요.

- 대 상: 옥천 출생아 중 신청가구
- 내 용: 아기에겐 전하는 축하의 글
- 신청기간: 아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문 의: 기획감사실 홍보팀 ☎ 043-731-3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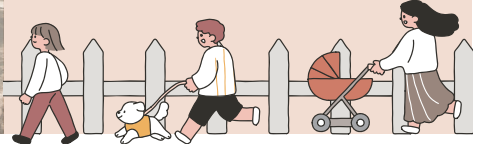
가장 높은 곳에서 금강을 아우르는 마을

청성면 고당리



옥천 동네 마실

‘옥천 동네 마실’은 옥천 사람들의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카메라 하나 돌려메고 찾아가 고향 이야기, 추억 이야기, 인생 이야기 등을 두런 두런 얘기하며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는 꼭지로 꾸며집니다. 주변에 인생을 즐기며 사는 주민이나, 어려워도 보란 듯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분들의 추천을 기다립니다.



다랑이는, 하얀 옷나무... 옛 모습은 사라져가지만

옥천읍에서 30여 분, 폐도를 따라 반짝이는 금강을 눈에 담다 보면 어느새 청성면 고당리에 이른다. 강촌과 높은벼루(고현), 월곶이(원당) 세 자연 마을을 품은 고당리는 현재 귀촌인까지 45가구 정도가 산다. 세 마을 중 가장 작은 곳은 강촌으로 현재 9가구량이 함께 살고 있다. 원당은 예로부터 가장 큰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이가 떠나 12~13가구 정도가 산다. 원래 각 자연 마을 별로 1개 반씩 구성돼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원당 주변 보청천 근처로 귀촌인들이 터를 잡으며 1개 반이 추가로 만들어져 총 4개 반이다. 물론, 주민 대부분 50~90대로 이곳 역시 고령화된 여느 농촌마을과 같다.

주민들이 고령화되면서 고당리 풍경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원당을 제외하고 높은 산세를 자랑하는 높은 벼루와 강촌, 과거 이 마을 산 골짜기를 따라가며 구석구석 있던 다랑이는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됐고, 옥천 옷 산업의 태동이 됐던 옷나무도 예전만큼 많지는 않다.

좁은 면적의 밭을 계단식으로 꾸렸던 마을에서 쌀은 제사나 생일 때에나 조금 볼 수 있을 정도로 귀했다. 그때는 주로 콩, 참깨, 보리, 밀 등을 주식으로 삼아 재배 면적이 꽤 됐지만 이제는 농사로 먹고사는 사람이 몇 없다 보니 이런 밭 풍경도 과거의 것이 됐다.

마을 주변으로 가득했던 하얀 옷나무에, 겨울이면 옷 화철을 하기도 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 역시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다.

올해 고당리 이장이 된 천문식 이장(72)은 “예전엔 마을에 옷나무도 많고 어른들이 옷 화철을 하기도 하고, 마을에 장례를 치르게 되면 주민들이 모여서 관에 옷칠을 하기도 했다”고 그때를 회상한다.

“ 지금은 옷칠은 커녕 옷순도 예전만큼 많이 안 하죠. 그냥 몇몇 주민들이 옷순 조금 키워서 나눠먹거나 아이는 이들에게 팔거나 하는 정도예요. 옷도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된 거지…… 예전엔 마을에 들어오는 길이 험해서 마을 뒤로 산을 넘어 영동 심천 쪽으로 다녔다고. 그러다 주민들이 돈을 모아 같이 길을 닦았어요. 그게 1980년대였으니까, 오래전이지. 그 길 하나를 닦는데 4년이나 걸렸다고요.”

당시 마을 길을 완성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섰던 천문식 이장은 그 열의를 인정받아 80년대 마을 이장을 맡기도 했더라. 잘 포장된 길의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위해 마을 안팎을 다독여 길을 닦아낸 열의라니. 물론 이 역시 마을 주민들의 단

결이 기반이 됐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터. 지금도 강촌 주민들은 서로의 집에 삼삼오오 모여 안부를 전하며 그 마음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집은 대추나무가 있어서 대추나무 카페, 여기 아랫집은 복숭아나무가 있어서 복숭아 카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웃음). 거의 매일 아침, 점심으로 지나다 들러서 차 한잔하고 얘기 나누며 지내고 있지요.”

고당리의 전망, 높은벼루

높은벼루는 이름처럼 높은 산언덕에 있다. 얼핏 보기에도 ‘저런 높이에 마을이 있다’는 사실에 저절로 입이 벌어진다. 오르는 길 역시 가파르다 보니 언덕지 ‘요새’로 향하는 기본마저 드는 마을이다.

그러나 오르기 어려운 만큼 그곳에서 누리는 풍경은 여느 마을과는 확연히 다르다. 저 멀리 첩첩이 쌓인 산들이 보이고 그 사이로 흐르는 금강, 높다란 고속도로 교량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런 높은벼루에서도 전망이 가장 좋은 집에 산다는 진지용(63) 씨는 4반(높은벼루) 반장을 맡아 마을 집 수리나 제초, 어르신 안부를 챙기는 일 등 마을 전반의 살림을 맡고 있는이다. 고향인 높은벼루를 떠나 서울과 울산에서 40년을 살다 건강 문제로 고향에 다시 돌아온지도 5년. 어릴 적에 살던 고향인데다 맑은 공기와 금강을 낀 풍경 속에서 절로 건강도 좋아졌다고.

한참 마을 자랑을 늘어놓던 그도 하나 아쉬운 것은 있다. 길이다. 외지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방향으로는 포장도로가 낫지만 마을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면 여전히 비포장에 배수로가 없어 비가 오는 날마다 고생이다. 이 길을 어찌할 도리가 없어 보온 덮개를 깔아 놔지만 소용이 없다. 비가 오면 다시 흙이 흘러 내려 장화 없이는 다니기도 힘들다. 무엇보다 높은 지대에 계단식으로 집이 자리한 만큼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빗물과 흙에 아래 쪽 집들의 안위가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 과거 낙석이나 홍수를 막기 위해 없이 살던 시절에도 뒷산 나무에 절대 손을 대지 못하게 했던 마을이었으니, 장마철마다 조마조마해지는 주민들의 가슴도 여전하다.

“주말이면 외지 손님들이 동네 구경한다고 이 좁은 길로 차들이 막 들어와요. 길만 있으면 관광지다 싶은데, 일단 마을

주민들이 편히 생활할 길도 없으니까요. 그나마 마을에서 알아보니 땅마다 주인들이 다 달라 토지 사용에 대해서도 확답을 받기가 어려운 형편이고요.”

진 반장 옆집에 사는 박아소(82), 김중순(72) 씨 부부도 같이 나기를 기다린다. 지금이야 다람쥐 택시가 마을까지 들어와 편히 바깥출입을 할 수 있게 됐지만, 마을 안길은 여전히 통행이 불편하다. 마을 회관이 없는 높은벼루에서 오랫동안 자신들의 집을 회관처럼 내어주기도 했던 부부. “김치를 천장까지 쌓아두어도 설 즈음이면 동이 났다”고 그 시절을 돌이키던 부부는 “마을에 바라는 거, 길이나 좀 해주면 좋지. 회관도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꿀병에 부쳐 보낸 안부 인사

과거만큼 많은 가구가 살지도, 또 어린이나 젊은이의 모습을 찾아보기도 어려워졌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고당리 인심만큼은 여전하다.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을을 찾은 날 역시 이런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 있었으니. 바로 높은벼루에 사는 진성기 씨가 동네 어르신에게 나눠달라며 꿀 세 병을 이장에게 맡긴 것이다. 이걸 받은 천문식 이장은 강촌 조순희 씨, 원당 송말순 씨, 높은벼루 박정남 씨 등 마을 어르신들께 전하며 그 마음을 나눈다.

“고향이니까.” 고당리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떠나지 않고, 혹은 떠났다카도 다시 돌아와 서로를 챙기고 마을 살림을 걱정하는 이유는 바로 이곳이 고향이어서다. 사라지는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고향이란 뭘까. 유년을 보낸 고향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가족 일지도 모르겠다. 기억이 예쁜 길로 길이 이어지길, 주민과 함께 기다린다.



박아소(82), 김중순(72) 씨 부부



옥천군 보건소 앞, 오래된 간판에서 세월이 느껴지는 일봉쌀상회. ‘덜커덩’ 미닫이문을 여는 소리에서도 흘러간 시간이 들리는 듯하다. 50년 전부터 쌀과 잡곡을 팔며 삶을 일궈온 일봉쌀상회 오명자(81) 씨를 만났다.

사람이라면 선이 넘은, 우리 둘째와 또래 친구 일봉쌀상회

오명자 씨는 1943년 옥천읍 구일리 귀죽마을에서 나고 자라 스물다섯 되는 해에 옥천읍 옥각리로 시집을 왔다. 그가 쌀 상회를 시작한 것도 그 이듬해부터다. 처음엔 옥천읍 삼양리 서일빌라 근처에서 20년 동안 가게를 운영했는데, 이후 금구천을 건너 지금의 자리로 옮겨온 지도 20년이 넘었다.

“시골에 와서 농사 1년 해 보니까 힘들어 못 짓겠어. 아저씨(남편)가 쌀장사를 좀 했었으니까 말했지. 기왕 하는 거 시내로 나가서 하자고.”

가게 이름에 들어가는 ‘일봉’은 오명자 씨의 첫째 아들 이름에서 따왔다. “어릴 적 둘째 아들 현봉이가 왜 ‘현봉 상회’는 없느냐 물길래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네 이름까지 다 넣냐?’ 했지. 어쨌든 이름을 팔아서 그런지 장사가 잘됐어.”

둘째 아들 강현봉 씨가 백일 되던 무렵 문을 연 가게는 그 갓난아기가 52세가 된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아들들의 세발자전거에 곡식 포대를 싣고 배달을 하기도 했더니, 두 아들은 일봉쌀상회와 함께 자란 셈이다. 그렇게 자란 아들들이 어느새 변호사와 미용사가 되어 제 삶을 꾸리고 사는 것은 오명자 씨의 큰 자랑이다.

“일봉상회 가면 없는 게 없다더라”

‘옥천의 일봉상회 가면 없는 게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던 때가 있었다. 매일 1톤 트럭 두 대 분량의 물품을 실어 날랐고 45평 창고에 쌀 포대가 가득 찼던 때다. 오명자 씨의 남편 강한용 씨가 전국에서 쌀과 함께 콩, 팥, 깨 등을 직접 공수했는데, 나름대로 제값을 쳐주며 농민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그땐 일꾼도 두세 명이 함께 일했다니 일봉쌀상회의 전성기를 짐작할 수 있다. 오명자 씨는 옥천 쌀이 기후 때문인지 힘이 좋고 맛있다고 자부했다. 그 맛을 아는지 대전에서 오는 손님도 있다.

“진짜로 그땐 돈 많이 벌었어. 장사 마치고 집에 와서 꼬박 졸아 가며 돈을 썼지. 서일빌라 쪽에 있을 적엔 쌀을 아침부터 팔면 저녁 8~9시에 끝났어. 이렇게 하다가 죽겠다 싶었는데 여기로 가게를 옮겨서는 편해졌어.”

재산을 노리는 도둑도 많았다. 곡식은 물론이고, 여름에 문을 열고 자면 금고가 털리기도 했다. 오명자 씨는 도둑 잡은 이야기 늘어놓는다.

“밤에 이웃집에서 전화가 와서 ‘아주머니, 도둑 든 것 같아요.’ 이래. 내려가 보니 봉고차에 우리 물건을 가득 실었어. 차 번호판에 화장지를 붙여서 가린 걸 싹 닦아서 확인하고 신고했지. 그렇게 도둑도 잡고 소매치기도 잡았어. 나중에 경찰들이 도둑 잡으면 자기한테 달라고 우스갯소리도 할 정도였지.”

전통에서 역사가 되려 합니다

쌀장사는 체력이 많이 필요하다. 사람 키만 한 자루를 들고 옮기는 일을 오래 해서인지 남편 강한용 씨는 걷기 힘들 만큼 건강이 안 좋아졌다. 오명자 씨 역시 나이가 들면서 일봉쌀상회의 창고도 점차 비어 갔다. 분식과 외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쌀 소비가 줄어든 이유도 있다.

“인제 장사 고만해야 쓰겠어. 우리 영감님은 편찮아서 병원에 가 계시고, 나 혼자 가게를 치우려니 잘 안되고, 하던 대로 일하고 있지만 남은 봉다리들(곡식 포대)만 빠져나가면 졸업할라꼬, 오래 하면 2~3월까지 할라나. 아쉽긴 하지만 너무 오래 했어.”

“늙은 대로 재미나게 살아야지”

오명자 씨의 앨범에는 쌀 사진만 있진 않다. 그는 운동과 여행, 노래 같은 것들로 자기만의 앨범을 채웠다. 젊을 적에는 아침 일찍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출근하고, 운동하며 만난 친구들과 시합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갔다. “이제 친구 만나는 것밖에 없어. 젊어선 멋지게 살았으니까 또 늙은 대로 재미나게 살아야지.”

그의 새해는 벌써부터 사랑하는 사람, 즐거운 취미 생활에 대한 기대로 가득하다. 오래도록 운영한 가게를 정리하는 것은 아쉽지만 그는 갓 지은 쌀밥만큼 따스운 나날을 보낼 자신이 넘친다. 그는 그동안 가게를 찾아 준 손님들에게도 작별을 고했다.

“우리 손님들에게 고마웠다는 말을 하고 싶어.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행복했다고.”



행복드림 옥천

기부로 나누고
답례로 곱하고



내 고향 옥천에 행복을~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e음



※ QR코드 인식시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 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옥천군민(주민등록을 옥천에 두신 분)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옥천군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옥천 발전을 위해 사용되며, 그 보답으로 기부자에게 옥천 농·특산물 등 답례품을 보내 드립니다. 또한, 직장인(자영업자)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기부는 1만원, 10만원 등 금액에 상관없이 1년 동안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옥천이 고향이신 출향인, 옥천에 살고 싶은 도시민 여러분께서 옥천을 사랑해 주시면 '행복 옥천'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부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혜택1 세액 공제

-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 공제



직장인, 사업하시는 분 매년 연말정산 하십시오!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라서 기부한 금액만큼 그대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혜택2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의 30% 답례품 제공
- * 10만 원 기부 시, 3만 포인트
- * 500만 원 기부 시, 150만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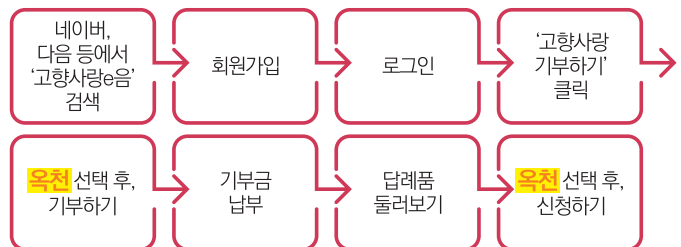


기부금액의 30%가 포인트로 적립돼요. 이 포인트로 옥천에서 준비한 농특산물, 지역화폐 등을 구입하실 수 있어요. '고향사랑 e음'에 접속하시면 포인트 사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기부는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고향사랑e음 (https://www.ilovegohyang.go.kr/)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제도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꼭 방문하시고 옥천을 사랑해 주세요.



오프라인 가까운 농협은행 방문

전국 농협은행을 방문하시면 창구 직원의 안내에 따라 기부금 기탁서를 작성하시고, 바로 납부하실 수 있어요.

- 개인만 가능(단체, 법인 기부 불가)
- 금액은 1만원, 10만원 등 자유롭게 기부
- *개인별 1년 동안 최대 500만원 까지



기부금은 살기 좋은 옥천을 만들기 위한 씨앗입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돕고 아이들 교육 환경 개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문화·예술 활성화, 군민 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옥천군 고향사랑기부제!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국토의 중심, 도약하는 옥천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